

80년의 질문
100년을 향한 비상



글로벌대학사업단
WONKWANG UNIVERSITY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

2026 생명존중 교육 리포트:
80년의 질문, 100년을 향한 비상

발행일: 2026. 06. 19.

발행인: 염승준

발행처: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

기획: 김태우

검수: 박찬양, 전승훈

© 2026 WON-MIND Center. All rights reserved.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광대학교의 역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제생의세 · 무아봉공 · 일원세계 건설



▲ 유일학림 1기 졸업생 단체사진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法語) 제4 경륜편(經綸編) 4장

원기 31년 5월, 유일학림(唯一學林) 개학식에 훈시하시기를 [유일학림은 대중사께서 재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唯一)이라는 교명까지 정하셨으나, 시국 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유일의 참 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제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세계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효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 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Introduction

들어가며

1946년 유일학림의 출범 이후 원광대학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복합위기(Polycrisis)의 시대 속에서 대학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가.

오늘날 기후위기, 팬데믹, 전쟁,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과 사회, 자연을 분절과 대립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온
기존 문명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 생명존중 교육 리포트』는
2040년 생명중심 개벽대학의 도약을 준비하는
원광대학교의 발걸음에 맞추어
생명존중 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80년을 이어온 질문은
AI 시대(물질문명)와 생명 시대(정신문명)가 함께 도래하는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이제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본 리포트가 생명존중 교육을 이해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원광대학교가 다음 100년을 향해 비상하는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승준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장

Contents

목차

Chapter 1.

1. 80년의 질문

- | | | |
|------|-------------------------|----|
| 1.1. | 80년의 발자취 | 05 |
| 1.2. | 80년을 이어온 질문 | 06 |
| 1.3. | 생명존중 교육, 다음 100년을 향한 동행 | 08 |

Chapter 2.

2. 응답하라 2026

- | | | |
|------|--------------------|----|
| 2.1. | 생명존중 교육이란 | 11 |
| 2.2. | 생명존중 교육의 현주소 | 12 |
| 2.3. | 교실에서 만난 생명존중 | 15 |
| 2.4. | 교실 밖에서 만난 생명존중 | 16 |
| 2.5. | 생명존중 교육, 다음의 길을 묻다 | 17 |

Chapter 3.

3. 100년을 향한 비상

- | | | |
|------|-----------------|----|
| 3.1. | 다음 100년을 향한 비상 | 22 |
| 3.2. | 생명존중 교육 연구노트 | 23 |
| 3.3. |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캠퍼스 | 25 |





Chapter 1.

80년의 질문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 1.1. 80년의 발자취
- 1.2. 80년을 이어온 질문
- 1.3. 생명존중 교육, 다음 100년을 향한 동행

1.1.

80년의 발자취



원광대학교 발전 연혁

1946. 05.	유일학림 개설
1951. 09.	원광초급대학 설립
1953. 01.	원광대학교 설립
1971. 12.	종합대학교로 승격
⋮	
2026. 03.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통합

혁신교육 선도대학

- **BK21** 사업 선정(1999, 2006, 2013)
- **NURI** 사업 선정(2004, 2006)
- **LINC** 사업 선정(2014, 2017, 2019, 2020, 2022)
- **PRIME** 사업 선정(2016)
-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2024)

1.2.

80년을 이어온 질문

원광대학교의 역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1946년 유일학림의 출범 이후 원광대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가치를 묻는 질문을 놓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물음이었다.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대학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시대마다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은 달라졌고, 대학은 그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배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지식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 유일학림 전경



오늘날 이러한 질문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 일부를 대체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팬데믹과 전쟁,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는 인류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가치와 공동체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

원광대학교가 주목하는 ‘생명존중’은 이러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자 실천적 응답이다. 생명존중은 인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인간 사회를 일원(一圓)의 진리에 바탕한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조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이다. 이는 생명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존엄과 상호의존의 가치로 바라보는 관점이며,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지역과 세계를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명존중 철학은 원불교의 사은(四恩)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은은 인간과 자연, 사회와 세계가 근원적인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하나의 근원인 일원(一圓)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報恩)하며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삶의 원리이다.

원광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지덕겸수·도의실천과 원불교 정신인 제생의세는 이러한 일원의 진리와 사은의 가르침을 교육과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혜와 덕성을 함께 기르고, 바른 도리를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명존중은 단순한 교육 주제가 아니다.

“AI·생명 시대에 원광대학교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이자, 교육과 산업, 그리고 인간의 삶을 생명의 가치 위에서 다시 연결하는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생명존중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이 바로 생명인재이다. 생명인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인 동시에,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그리고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는 원광대학교가 추구하는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실천인’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80년 동안 이어져 온 원광대학교의 질문은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물음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생명존중이라는 가치 속에서 다음 100년을 향한 원광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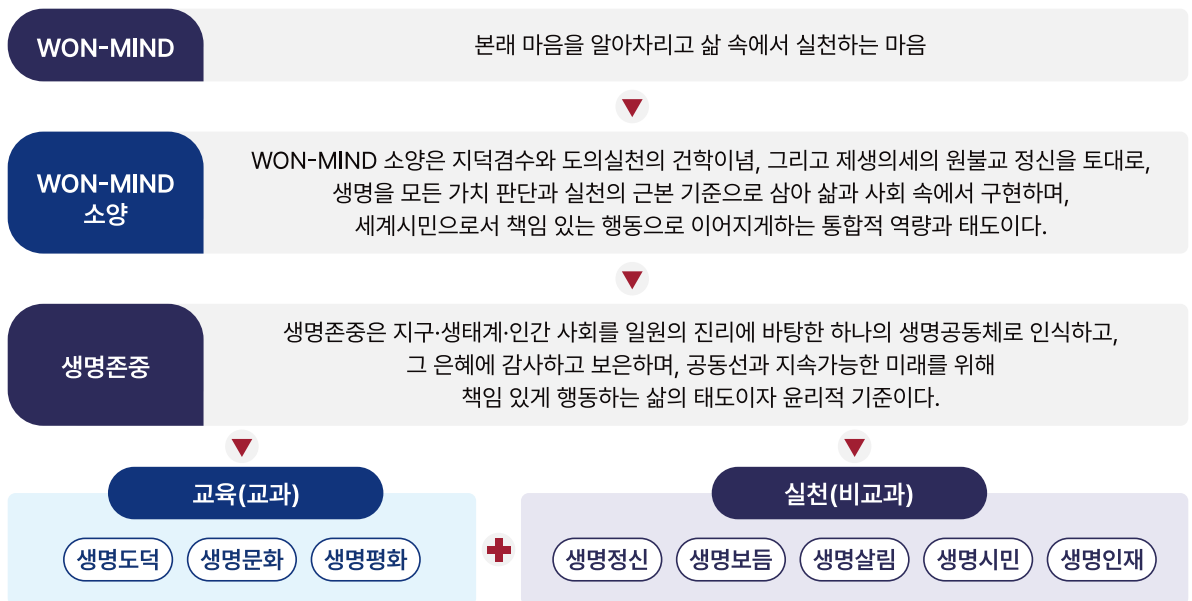
1.3. 생명존중 교육, 다음 100년을 향한 동행

생명존중 교육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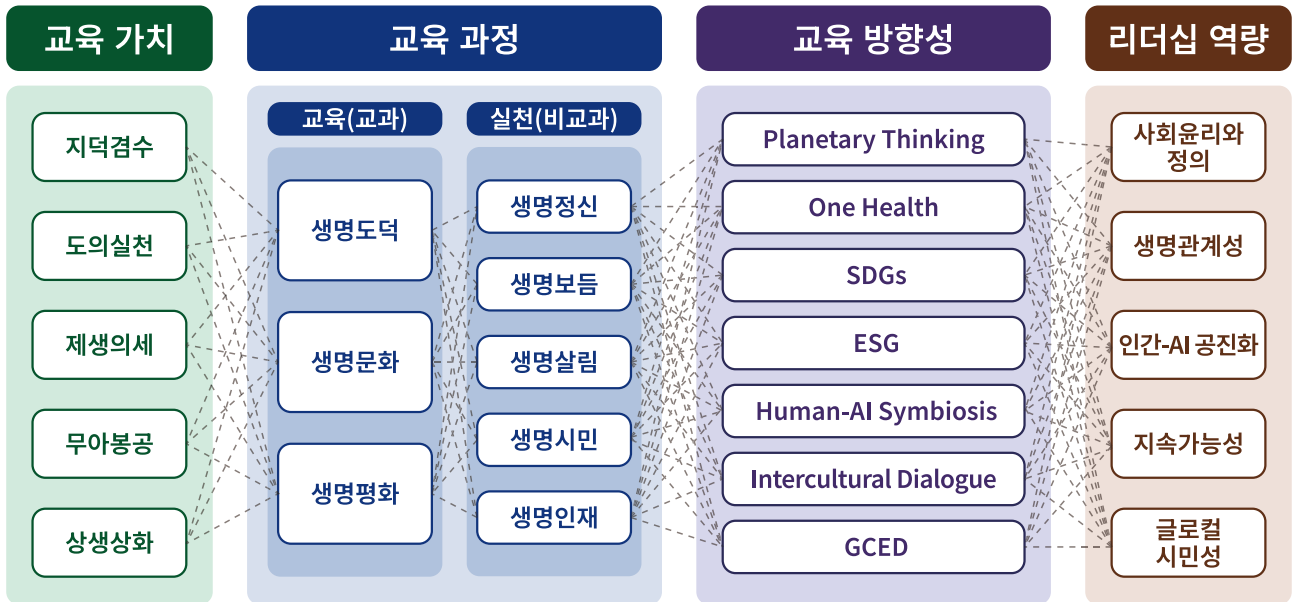


WON-MIND 체계도

WON-MIND는 본래 마음(心印/本性)을 알아차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이며, WON-MIND 소양은 본래 마음을 깨달아 그 깨달음이 교육을 통해 내면화되어 형성된 역량과 태도이다. 생명존중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실천으로 관통하는 핵심 가치이다.



생명존중 교육 프레임워크



생명존중 교육과정 로드맵

분류	생명존중 교육 교양교과목		
트랙	기초교육	핵심역량교육	심화교육
생명도덕	건강의 사유학과 인생노트	마음인문학	인성함양과 마음치유 영화로 만나는 생명윤리 도예치유와 생태적 감수성 불멸의 윤리적 리더십 마음성찰과 사회공헌
생명문화	생명경제와 사회변동	생명 시대의 AI 관계학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감 리더러십 보건 의료 전문직 간 협업 리더십 문화예술 코드로 읽는 ESG 개론 다례와 존중의 미학 생명산업 이해와 적응
생명평화	21세기 세계시민 리더십	SDGs 실천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생태계 One Health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와 인도주의 사회정의와 건강 글로벌 공공의제와 의사결정



Chapter 2.

응답하라 2026

“생명존중 교육이란 무엇인가?”

- 2.1. 생명존중 교육이란
- 2.2. 생명존중 교육의 현주소
- 2.3. 교실에서 만난 생명존중
- 2.4. 교실 밖에서 만난 생명존중
- 2.5. 생명존중 교육, 다음의 길을 묻다

2.1. 생명존중 교육이란

생명존중 교육

생명존중 교육은 지구·생태계·인간 사회가
일원의 진리에 바탕한 은혜 속에 서로 연결된 생명공동체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생명존중(Life Reverence) 용어 해설

생명(Life)

지구·생태계·인간 사회가
일원의 진리에 바탕한 은혜 속에
서로 연결된 생명공동체임을 깨닫는 것

존중(Reverence)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생명존중 철학

하나의 생명, 감사와 보은, 공동의 미래

하나의 생명

지구·생태계·인간 사회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다.

감사와 보은

모든 존재가 서로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한다.

공동의 미래

공동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

2.2. 생명존중 교육의 현주소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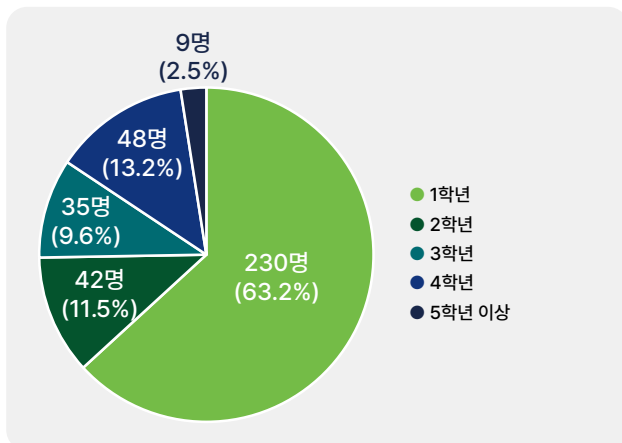
본 조사는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생명존중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해석에 대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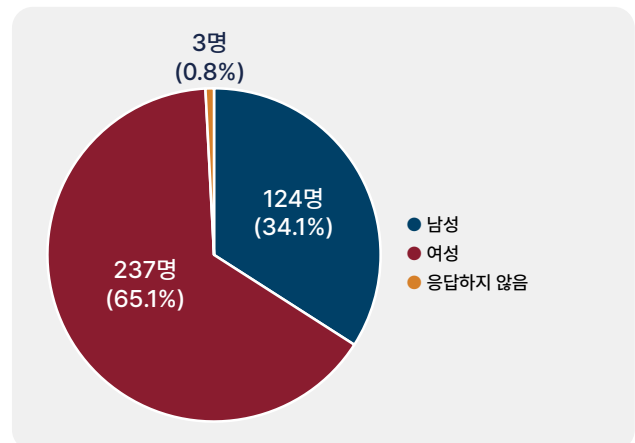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원광대학교 재학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다만 계열·학년·성별 등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결과는 전체 학생의 인식을 대표하는 통계적 결과라기보다 학생들의 인식 경향과 주요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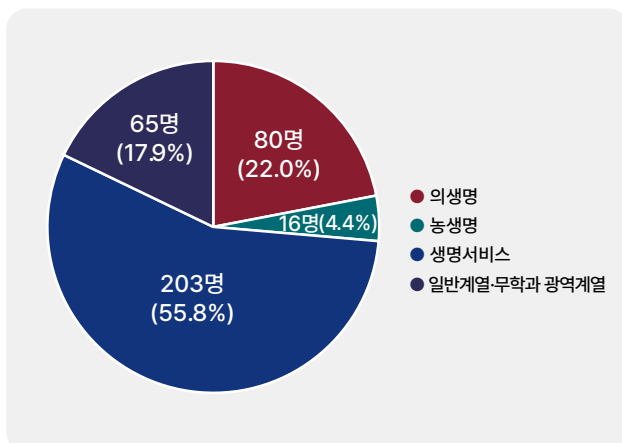
참여자: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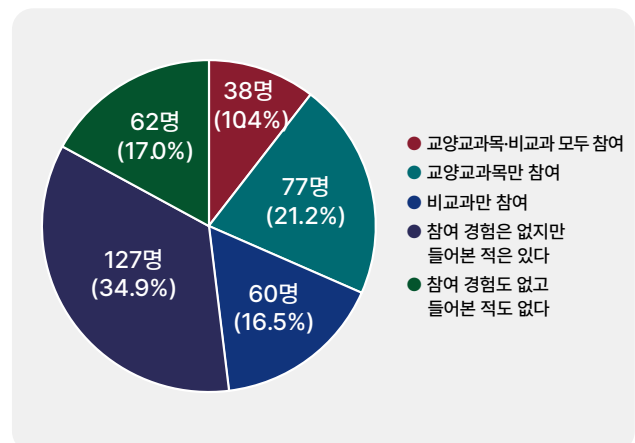
성별



참여자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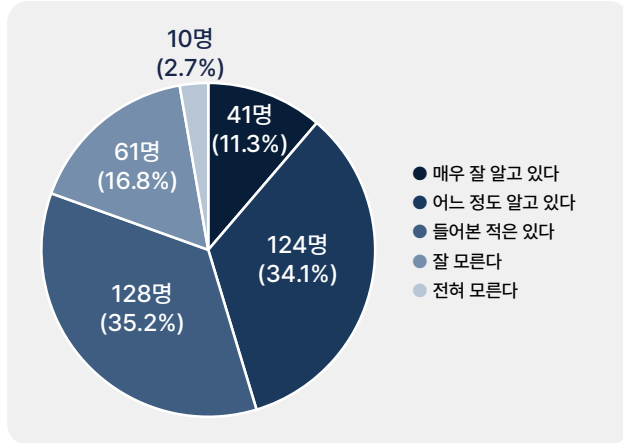


생명존중 교과·비교과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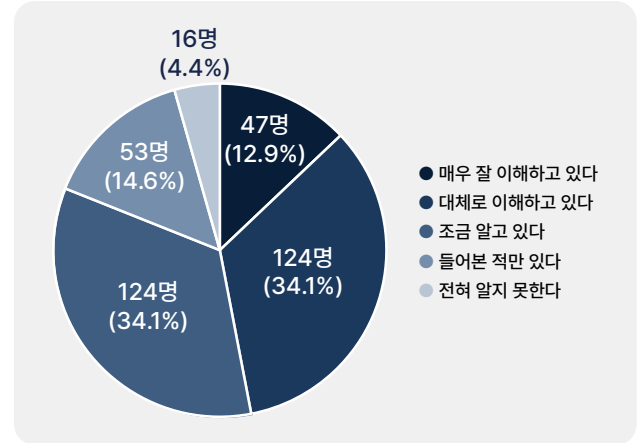


생명존중 인지도 조사

■ 생명존중 교육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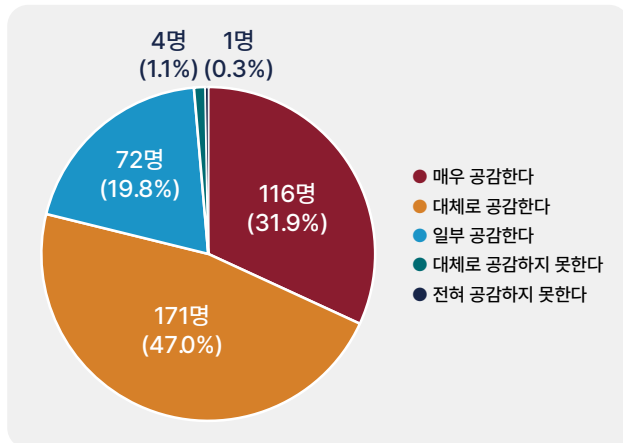


■ 지덕겸수·도의실천·제생의세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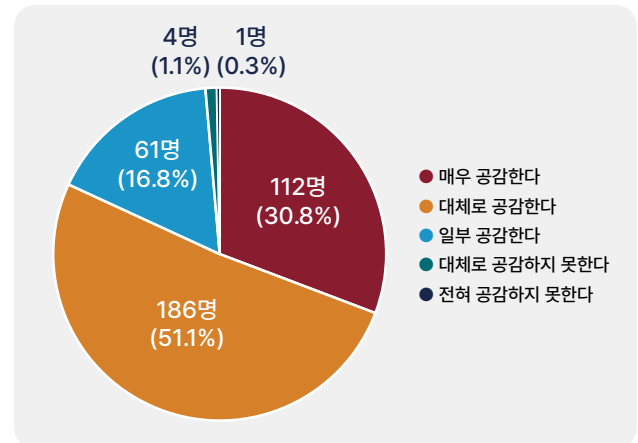


생명존중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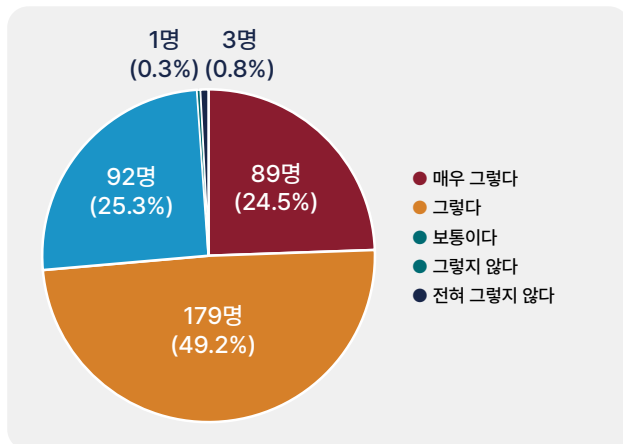
■ 생명 개념에 대한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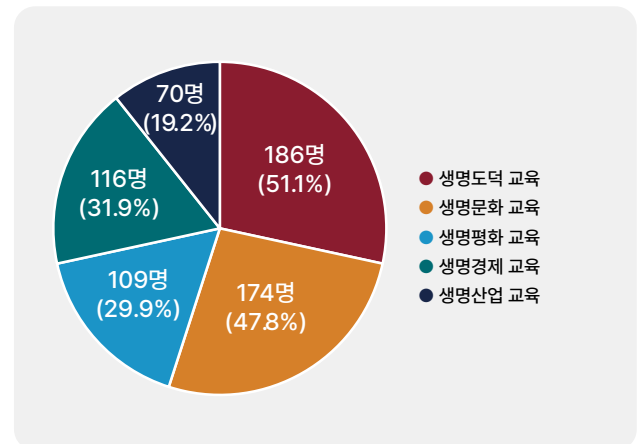
■ 존중 개념에 대한 공감도



■ 생명존중 개념의 시대적 적합성



■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생명존중 교육 분야(복수응답 가능)



Key Findings

본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는 '① 매우 그렇다'와 '② 대체로 그렇다'를 긍정적 응답(Positive Response)으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 생명존중 교육, 안정적 정착

응답자의 45.4%는 생명존중 교육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7.0%는 지덕겸수·도의실천·제생의세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생명존중 교육이 대학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확보하며 교육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생명존중 철학, 공감대 높게 형성

응답자의 78.8%는 생명공동체로서의 생명 개념에 공감하였으며, 81.9%는 공동체적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는 존중의 개념에 공감하였다. 이는 생명존중 교육이 제시하는 철학과 가치가 학생들에게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생명존중 교육

응답자의 73.6%는 원광대학교의 생명존중 개념이 SDGs, 지속가능발전, AI 시대 등 현대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생명존중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향후 과제, 참여와 실천의 확대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 공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교과·비교과 참여 경험은 48.1%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는 교과·비교과·학생활동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교육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명존중 교육, '생명도덕'과 '생명문화'를 가장 우선시

향후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로는 생명도덕 교육(51.1%)과 생명문화 교육(47.8%)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AI 시대일수록 생명윤리, 인간다움, 공동체성, 관계성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nclusion

생명존중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공감과 시대적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2.3. 교실에서 만난 생명존중

김지승(한약학과)

나와 생명존중 교육의 첫 만남은 <21세기 세계시민 리더십> 수업이었다. SDGs는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었지만, “아마존 원주민을 문명화하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나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생명존중은 단순히 환경이나 생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문화와 공동체의 관계를 함께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업에서 시작된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실 밖으로 이어졌다. <한일 대학생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생명존중 SDGs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서로 어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섰다. 대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생명존중이란 결국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후 참여한 <지구헌장(Earth Charter) 리더십 교육>은 생명존중에 대한 시야를 세계로 확장시켜 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미래 사회에 대해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 속에서도 공동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최근 참여한 <생명존중 SDGs 오픈 포럼>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생명존중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은 결국 나를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해 주었고, 생명존중은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교실을 넘어 세계로
일본 현지답사 간담회에 참여한 김지승 학생(나고야, 일본)

2.4. 교실 밖에서 만난 생명존중

이다은(사회복지학과)

<WON-MIND센터 학생자문단> 활동을 계기로 생명존중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센터에서 활동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특히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아 <한일 대학생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생명존중 SDGs 오픈 포럼>에도 참석했다. 돌아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나의 대학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자산이었다.

오픈 포럼에 참여하기 전에는 생명존중이라는 주제가 다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다. 생명존중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은 예상과 달랐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즐기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행사장 곳곳에서는 공감과 웃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대화를 통해 인상 깊었던 점은 생명존중이 거창한 담론 속에만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생명존중의 실천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명존중은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명존중이 이제는 훨씬 가깝게 다가온다. 생명존중은 거창한 해결책이나 특별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경험은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생명존중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요즘 대학 생활이 무척 즐겁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 속에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생명존중 SDGs 대학생 오픈 포럼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다
한일 문화교류회에서 발언하는 이다은 학생(요코하마, 일본)

2.5. 생명존중 교육, 다음의 길을 묻다



교무처장 인터뷰 고시용 교수님

Q&A

Q1. 개교 80주년, 통합 원년인 원광대학교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생명존중'의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1. 개교 80주년과 통합 원년은 원광대학교가 걸어온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건학이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생명존중의 핵심 방향성은 '은혜로운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의 생태계 구축'에 있다.

지금까지의 생명존중이 자살 예방이나 인간 중심의 인성교육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기후위기, AI 시대의 인간 소외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는 포괄적 가치로 확장되어야 한다. 통합 원년을 맞아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캠퍼스 구성원 전체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모든 생명(물질과 정신, 인간과 자연)이 은혜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글로벌 생명공동체'의 모델을 원광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Q2. 교수님께서서는 원불교와 종교교육, 교양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명존중 교육'은 단순한 가치 교육을 넘어 오늘날 대학과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2. 그동안 원불교와 종교교육, 그리고 교양교육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참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자각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무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대학과 사회는 극심한 정신적 고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존중 교육은 단순한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대학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타인을 포용하는 회복탄력성을 기르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물질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할 정신문명을 주도할 ‘도덕적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사회로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를 막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학 교육이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Q3. 현재 원광대학교에서는 생명존중 교육이 교양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교과 운영을 넘어 대학의 교육체계 전반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치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무처장님께서 향후 생명존중 교육이 대학의 학사 및 교육 시스템 속에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3. 생명존중의 가치가 대학의 DNA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정 교양 과목에만 머무르는 단편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사 및 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융합적 생태계’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교양에서 전공으로의 연계 및 융합 교육 확대이다. 모든 전공 영역에서 각 학문이 생명존중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는 ‘생명존중 융합 마이크로디그리(MD)’나 전공 연계 교과목을 개발하겠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결합이다. 가칭 ‘L.I.F.E. Week’와 같은 축제 및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마음공부 기반의 상담 시스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명 나눔 봉사활동 등을 학점이나 인증제와 연동하여 학생들이 삶 속에서 가치를 체화하도록 돕겠다.

셋째, 유연한 학사 제도를 통한 실천중심 교육이다. 이론 중심의 강의를 넘어,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인권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해보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학사 구조를 활성화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생명존중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확장되도록 학사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



센터 운영위원 인터뷰

김정배 교수님

Q&A

Q1. 개교 80주년, 통합 원년인 원광대학교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생명존중'의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1. 개교 80주년과 통합 원년은 단순히 대학의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뜻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이라는 시간은 원광대학교가 사람을 길러온 시간이며, 통합 원년은 그 시간을 더 넓은 생명의 질서 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원광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생명존중은 '생명을 보호하자'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하며,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저는 생명존중의 핵심을 '살아 있는 것의 고유한 결을 훼손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결이 있고, 자연에는 자연의 결이 있으며, 지역과 공동체에도 저마다의 결이 있다. 통합 원광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다양한 생명의 결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결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드는 일이다. 생명존중은 결국 '같이 지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원광대학교의 건학정신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깊은 문장이 놓여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날 생명존중 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효율과 성과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속도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더 큰 경쟁력이 아니라 더 따뜻한 관계이다. 더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원광대학교는 이제 '한국의 생명 허브'라는 비전 아래 생명산업, 생명윤리, 생명문화, 생명교육을 함께 품어야 한다. 생명존중은 의학이나 보건의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 문학, 예술, 철학, 과학, 기술, 지역사회 실천이 함께 만나는 통합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한 학생이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연과 공동체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광대학교가 만들어갈 새로운 100년의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Q2. 아무래도 다가올 미래는 AI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과 경쟁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 ‘지덕겸수’, ‘도의실천’, ‘제생의세’라는 키워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A2.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을 묻는 질문은 결국 “인간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AI는 빠르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생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아파하고, 망설이고, 후회하고, 사랑하고, 끝내 책임지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단순히 더 빠른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존재이다. 더 정확한 답을 내놓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답이 누구의 삶을 살리고 누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지 묻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중’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기술이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효율적인가를 묻기 전에,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 편리한가를 묻기 전에, 그것이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한다. 생명존중은 기술 발전을 막는 말이 아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윤리의 나침반이다.

‘지덕겸수’는 AI 시대에 더욱 절실한 태도이다. 지식만 있고 덕성이 없으면 기술은 쉽게 차가워진다. 반대로 선한 마음만 있고 지식이 부족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덕성을 함께 길러야 한다. AI를 잘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를 비판적으로 읽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맞게 조정하며,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덕성이 함께 필요하다. 지덕겸수는 ‘똑똑한 사람’을 넘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도의실천’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일이다. AI 윤리, 생명윤리,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편리함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도의실천은 말의 윤리가 아니라 행동의 윤리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곳을 넘어, 자신이 배운 것을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 보는 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생의세’는 원광대학교가 AI 시대에 세계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구한다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내 곁의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된다.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말을 건네는 일, 보이지 않는 노동과 고통을 알아차리는 일,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배움과 돌봄을 나누는 일. 이것이 오늘의 제생의세이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생명을 기준으로 기술을 다시 묻는 일이다. 원광대학교가 길러내야 할 미래 인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사람이다. 기술을 잘 쓰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 자기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함께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생명존중 인재라고 믿는다.



Chapter 3.

100년을 향한 비상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캠퍼스”

- 3.1. 다음 100년을 향한 비상
- 3.2. 생명존중 교육 연구노트
- 3.3.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캠퍼스

3.1. 다음 100년을 향한 비상

| 원광대학교 Vision 2024

VISION Statement

Slogan

인재상

목표

4대 영역

4대 방향성

14대 전략과제

7대 핵심 성과지표

5대 기본지표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생명중심 개벽대학

The Life Hub of Korea : WONKWANG UNIVERSITY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창의적 실천인

2040년 국내 20위, 호남권 1위 대학 - QS Ranking 세계 500위 -

교육	지산학병연	국제화	대학경영	
① 생명산업 중심의 학사구조·학사제도 혁신	② 지산학병연 생명산업 생태계 허브화	③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양성	④ 원광대학교 대학 경영 고도화	
1.1 학생중심 유연 학사 체계 구축	2.1 지산학병연 집약형 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3.1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생태계 구축(Inbound)	4.1 행정 및 인사제도 혁신	
1.2 미래사회 대응형 교육모델 혁신	2.2 지역산업 연계 ER&BD 플랫폼 강화	3.2 글로벌 인재 양성 (Outbound)	4.2 재정 건전성 강화	
1.3 학생성공 지원 생태계 조성	2.3 연구중심대학원 경쟁력 기반 구축	3.3 생명산업 교육과정 수출	4.3 대학 브랜드 가치 향상 체계 정립	
1.4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4.4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교육혁신지수 학생지원지수 학생성공지수	생명보듬지수 생명산업 활성화지수	글로벌 혁신지수	지속가능지수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

원광대학교 100년을 향한 생명존중 교육혁신



3.2. 생명존중 교육 연구노트

■ 생명존중 교육이 태동되다

원광대학교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산업 인재는 단순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인간과 자연,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

■ WON-MIND의 ‘WON(원; 圓)’의 의미



본래의 마음 = 원불교의 마음으로서의 WON

깨어 있는 마음 = 원광대학교의 마음으로서의 WON

실천하는 마음 = 세계의 마음으로서의 WON

■ 생명존중 교육을 디자인하다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는 ‘생명중심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생명의 가치와 책임을 실천하는 WON-MIND 소양과 생명존중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생명존중 교육을 설계해 왔다. 이를 위해 SDGs, GCED, ESG 등 국제사회의 주요 담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구·생태계·인간 사회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 생명중심 생명산업 인재 양성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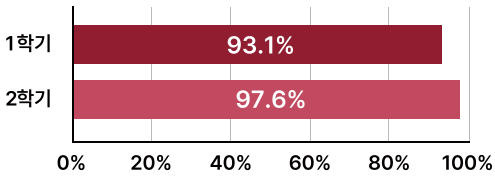
■ 생명존중 SDGs 교육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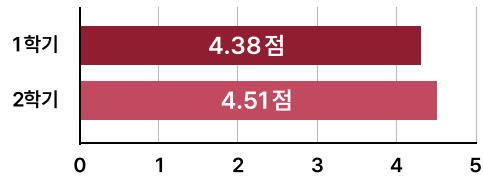
■ 생명존중, 교육의 빈칸을 채우다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는 2024년부터 원광대학교의 글로벌 생명산업 거점대학 비전 실현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생명, 공존,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생명존중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 교과목 이수율



■ 교과목 평균 수업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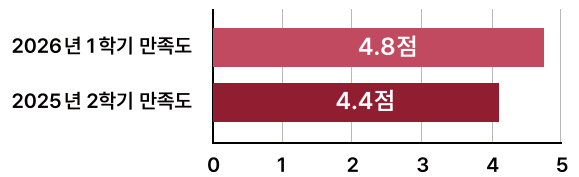


■ 생명존중, 학생들의 축제가 되다

생명존중 교육은 강의실을 넘어 캠퍼스 곳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참여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포럼과 캠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원봉사와 실천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경험한다. 생명존중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며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되고 있다.

■ 생명존중 실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5-2026)

센터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되었음



원광대-J.F.오비린대 생명존중 SDGs 학술문화교류(도쿄, 일본)



원광대-나고야대 생명존중 SDGs 심포지엄(나고야, 일본)



원광대-세이조대 생명존중 커뮤니케이션 캠프(군산 필드워크)



생명존중 기후행동 도시락 캠페인(2026 WONSTIVAL)

도덕교육원 WON-MIND센터

마음에서 시작된 생명존중은
또 다른 마음과 만나 일상이 됩니다.

배움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은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AI·생명 시대의 생명존중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명존중 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생명존중 캠퍼스

원광대학교 100년을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WON-MIND센터 학생자문단 명단

센터 학생자문단은 생명존중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강동훈	강현우	김가연	김명진	김민정
김지승	김진태	박시형	박지원	백준희
손주인	신아리	유선아	이경탁	이다은
이원희	이하진	임수아	장현우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